

低油價시대의 에너지소비절약

金正坤
〈動力資源部·行政管理擔當官〉

I. 머리말

정부는 최근 국제原油價 하락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국내석유제품가격을 인하하였다. 이는 국제油價 하락으로 생기는 경제적이득을 국내산업의 경쟁력제고에 우선 활용하여 국제에너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경제의 活性化와 성장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금번 두차례의 油價조정은 국내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에너지소비절약기공의 헤이방지도 동시에 감안하여 조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국민경제는 유가가 배럴당 1달러 떨어지면 국제수지개선 효과는 1.8억 달러, 물가는 0.5%, 성장은 0.15%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油價의 전반적인 하락은 그동안 油價에 억눌려오던 세계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최근 「3低」라 하여 국제금리의 하향세, 日本 円貨의 강세등과 더불어 우리 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好機는 하나의 希望과 可能性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를 現實化하는데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본란에서는 현재와 같은 低油價時代에도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에너지 소비절약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II. 국내의 에너지환경

1. 국제에너지 환경

최근 국제油價의 폭락은 OPEC산유국과 非OPEC 산유국간의 시장쟁탈전이 도화선이 된 것으로 당분간 세계 시장에서 原油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가격하락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된다. OPEC국에서는 더이상의 시장 잠식을 좌시할 수 없으므로 가격전쟁을 일으킴으로써 非OPEC 산유국을 위협하여 非OPEC의 석유증산정책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렇게 油價가 계속 하락한다면 비경제적 채유의 중단과 탐사 및 시추등 새로운 유전개발을 위한 투자의 정체 그리고 수요증대등으로 油價가 곧 반등하리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2차 석유위기 이후 각국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꾸준히 추진하고 석유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한 결과 에너지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석유의 존도가 감소되었다는 사실이다.

油價의 경우 80년대 후반에 걸쳐 안정적 약세에 있다가 1990년대에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견해이다.

그러나 여기서 에너지문제에 관한 한 보다 근원적인 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에너지자원이 유한하다는 것과 부존지역이 일부지역에 편중돼 있고 자원보유국간에는 전쟁 및 정치불안정등으로 제3의 석유위기 가능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이며 1·2차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박차를 가해온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은 경제성부족 및 이용기술 개발지연으로 현단계에 있어 실용화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앞으로의 세계 에너지환경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상존해 있는 것이다.

2. 국내에너지 사정

우리나라는 국내부존 에너지자원이 절대 부족하여 소요에너지의 75% 이상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유일의 부존에너지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石炭의 경우 매년 30m씩 탄층이 깊어지고 있으며, 탄질도 떨어지는등 생산여건이 좋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가 경제성장을 추구하면 할수록 산업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생활이 향상되어 石油를 비롯한 에너지수요는 계속 증가해 갈 것이다. 85년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에너지수입을 위해 지불한 돈이 65억달러로서 총수입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22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으며, 경제성장, 국제수지 및 외채개선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사소한 시장혼란이나 가격불안정에 쉽게 타격을 받기 쉬우므로 에너지에 관해서는 항상 보수적, 방어적 측면에서 최악의 사태를 감안하여 다루어야 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Ⅲ.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이러한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를 아껴쓰는 것」과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는 것」 뿐이다. 에너지는 개인·가정·산업·국가의 경제활동에

있어 기본적인 필수 재화로서 어느 하나의 경제주체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에너지절약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절약한 만큼 외화가 절감되어 국제수지 및 외채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가령 10% 절약을 실천할 경우 연간 6~7억불이나 되는 귀중한 외화를 아낄 수 있는데 이는 50억원 규모 공장을 110개 이상이나 건설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이다.

한편 에너지절약은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를 하는데 에너지가격이 10% 상승하면 도매물가에 직간접으로 4.5%의 인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에너지를 10% 절약한다는 것은 곧 물가 상승률을 4.5% 흡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기업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우선 절약한 만큼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오고 이것이 저축과 투자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체에 있어서는 에너지비용절감으로 원가절감을 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미래의 사회는 에너지 및 자원 절약형으로 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Ⅳ. 油價인하가 에너지절약에 미치는 영향

1. 에너지절약의식 이완

油價하락으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며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지출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비용의식이 적어지게 된다. 아울러 보다 편리한 것을 추구하려는 추세에 따라 절약보다는 소비를 선호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공동여 쌓아올린 근검절약의식이 퇴색하고 소비심리가 고개를 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심리위축 및 투자유보

油價하락분만큼 투자 및 회수기간이 연장되므로 투자의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며 유가하락에 힘입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게 되는데 이경우 제한된 자금을 갖고 운영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라인을 증설할 것이냐 아니면 에너지절약을 위한 투자에 집중할 것이냐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다분히 선택의 문제로서 선택의 기준이 단기성에 있느냐 장기적 안목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장기적인 안목이

요청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보다는 생산라인의 증설(물론 증설시설 자체는 절약형임을 전제)에 보다 매력을 느끼게 될 경우 에너지절약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의 연기 조정등이 나타날 수 있다.

3.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이행지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GNP단위당 에너지 투입 비중이 높은데 이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의 비중이 이들 나라보다 높기 때문이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은 제품원가중 에너지비중이 크므로 유가하락으로 타업종보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이들 업종이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편하는데 다소 지체케 된다.

4. 石油의존도 감축 지연

우리나라는 石油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원을 다변화시키는 것을 에너지정책의 기본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런데 유류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석탄등으로의 대체가 부진하게 되고 태양열, 바이오매스등 대체에너지개발보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공장 및 건물의 신증설에 있어서도 유류사용설비를 선호할 것이 예상된다.

V. 低油價시대의 에너지절약

1. 에너지절약의 생활화·구체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75%가 넘는 우리경제의 체질은 인체에 비유해 볼때 3/4이나 되는 피를 외부의 수혈을 받아 연명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이러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어먹고 에너지를 절약하여야 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결여되기 쉽다.

현재의 油價하락은 영속적인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油價하락의 양면성을 잊어서는 안된다. 저가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할 경우 제3의 에너지위기는 언제나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수 있는 것이며 유가 하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이 크면 클수록 유가 상승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이 비례적으로 크다는 것을 명심하여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생활화·구체화함으로써 유비무환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2. 油價하락효과 극대화를 위한 투자

기업은 에너지가격하락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곳으로 그 이익을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와 재무구조 개선 및 개발투자 등에 사용하면 에너지가격의 하락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저유가 시대야말로 실효성있는 절약기술개발과 절약시설투자를 늘려 구조적인 절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한다. 그러나 좋은 기회가 오래 지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기회란 달아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나 가정에서는 유가인하에 관계없이 에너지절약을 실천에 옮기고 절약투자의 고풍을 늦추지 않을 때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며, 앞으로 유가의 반등이 있을 경우 우리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비하여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산업구조개편등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경제에 체질개선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VI. 맺는말

현재와 같은 油價하락의 이면에는 에너지소비절약등으로 세계석유수요가 줄은 것도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유가인하의 즐거움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피와 땀이 깃들여진 절약으로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경제법칙에 따라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油價하락을 바라다면 에너지절약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며 에너지절약이 유가인하보다 훨씬 이득이며 가치가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는 비록 에너지자원의 혜택을 없으나 우수한 소질을 지닌 인적자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풍부한 소질과 능력을 바탕으로 개개인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나간다면 이것이 곧 마르지 않는 유전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에너지값이 떨어지는 때는 에너지 절약기반을 마련하여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후일의 어려움에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이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기대된다. ☐